

함께



실컷



맘껏

 **놀이터를**  
지켜라  
달님어린이공원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는  
대한민국 아동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아동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 놀이터를 지켜라

세이브더칠드런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은 도시놀이터 개선사업, 농어촌 아동지원사업, 학교놀이환경 개선사업 등 아동의 놀 권리 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놀이터 개선사업’은 폐쇄 예정인 놀이터, 낡고 위험한 놀이터를 아동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새롭게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지켜주는 사업입니다.

2015년 상봉, 세화 어린이공원에 이어 2016년 세번째 프로젝트인 ‘달님어린이공원’은 서울시의 낙후된 놀이터를 대상으로 각 구청에서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프로젝트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 곳으로 선정 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놀이터입니다.

낡고 안전하지 않아 아동이 노는 모습을 보기 어려웠던 달님어린이공원은 아동과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의 일방적인 디자인이 아닌 아동의 생각을 듣고,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노는 것 뿐만 아니라 놀이터의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주민 설명회, 아동 및 성인 디자인단을 운영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조성 된 달님어린이공원은 서울시, 강동구청, 강동어린이회관, (주)코오롱, (주)청우 펀스테이션, (주)아이땅, 마노아마노가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 (주)코오롱에서는 ‘놀이터를 지켜라’ 캠페인의 목적에 적극 지지하여 사업비뿐만이 아닌 건설업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디자인 재능기부까지 적극적으로 후원하여 만들어진 놀이터입니다.



## 놀 권리 회복 프로젝트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실컷, 맘껏  
놀 수 있도록 놀이환경을 만들어갑니다.



I. 놀이터를 만나다 • 10

II. 아이들은 왜 놀이터에 오지 않을까? • 18

III. 함께 만드는 놀이터 • 40

IV. 디자인하기 •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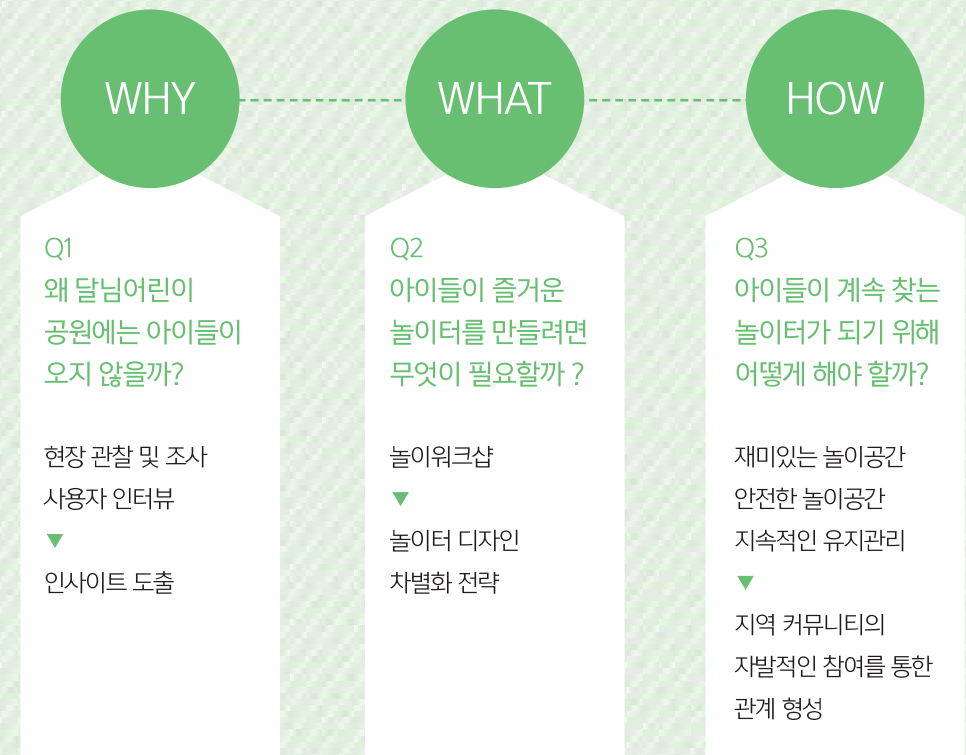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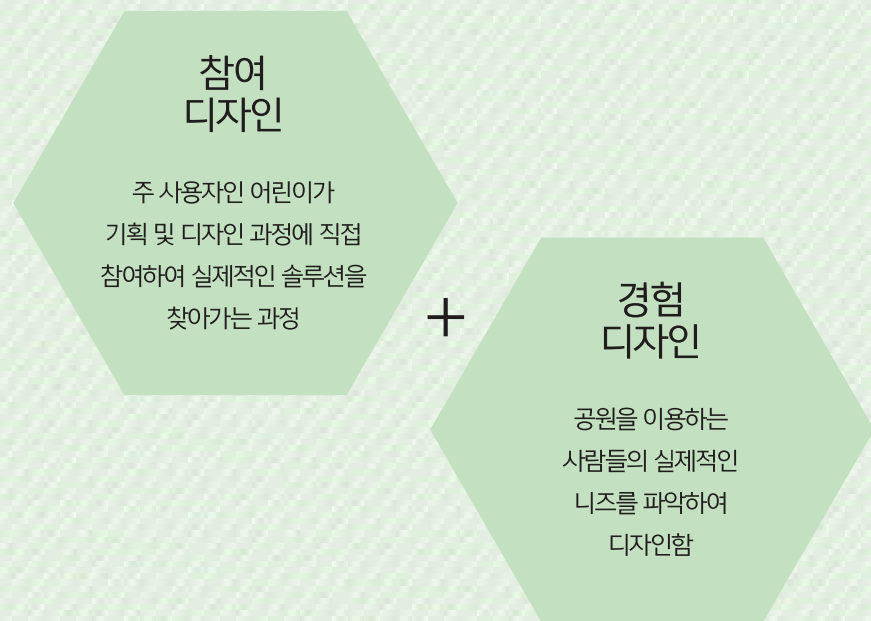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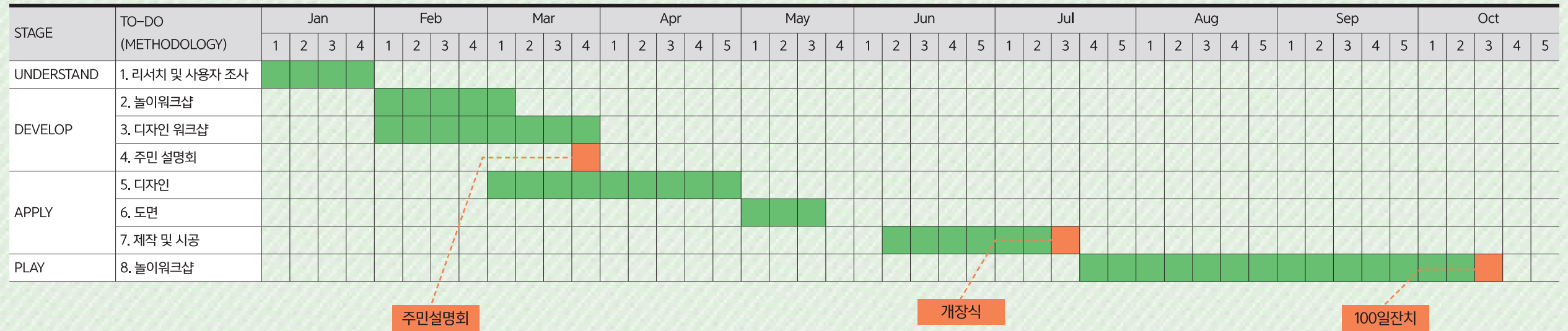
V. 애들이 놀자 • 66

VI. 달님아 반가워 • 72

VII. 달님아 축하해 • 86

마치며 • 100

# 일정표





I  
놀이터를  
만나다

강동구 길동의 달님어린이공원,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도시 놀이터 3호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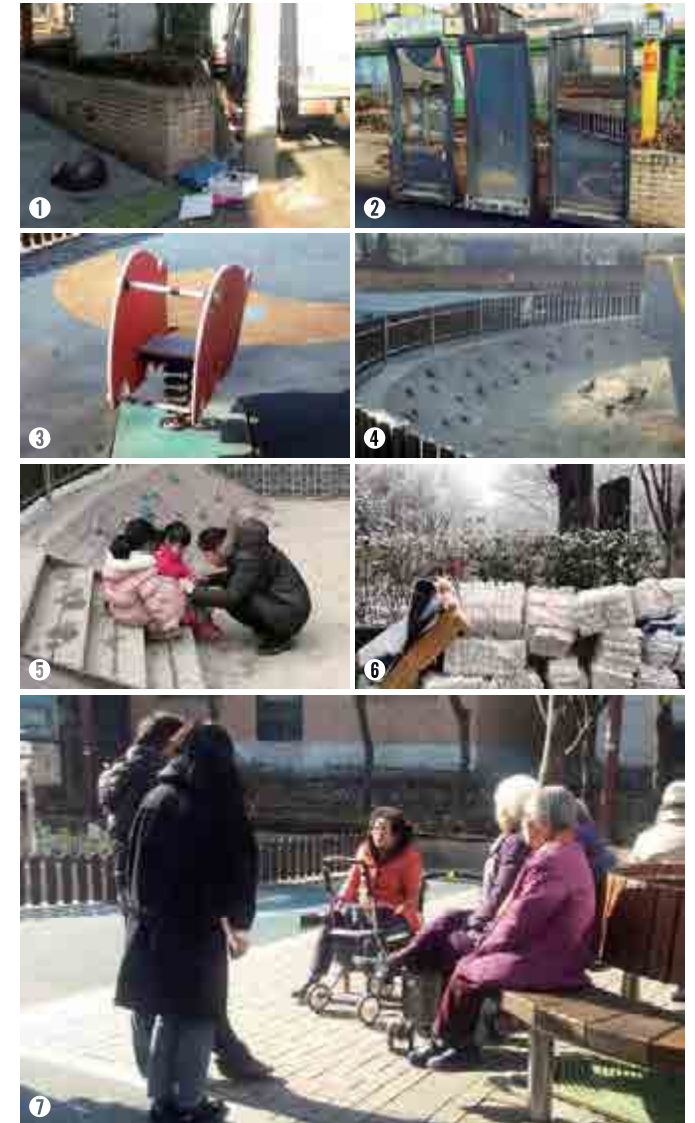
## 달님아 안녕?

놀이터 출입구에 쌓여 있던 쓰레기들, 놀이터 화단 뒤에 버려져 있는 술병, 놀이터를 가로지르는 오토바이, 노는 아이들 없이 처량해 보이는 낡은 놀이시설물, 그리고 그런 놀이터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모습들……

나름 멋진 조합놀이대와 사면놀이, 모래를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놀이터였지만 눈으로 들어온 광경은 그닥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다. 지붕에 올라가 앉아있는 게 전부인 조합놀이대는 아이들에게 그닥 흥미를 주지 못하고 있었고 모래 속 유리조각과 널부러진 쓰레기들은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은 놀이터의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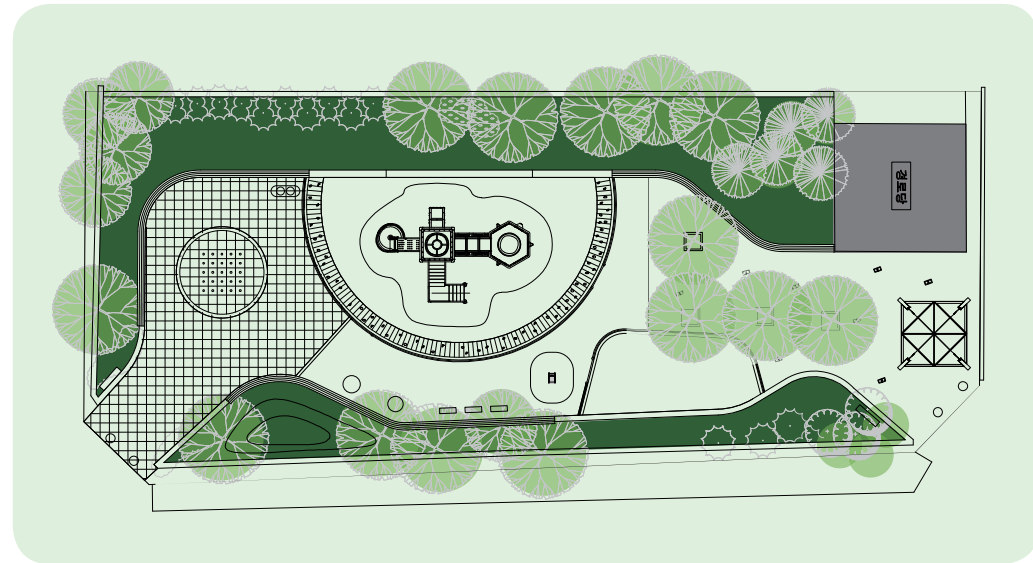
- ① 입구에 쌓여 있는 쓰레기
- ② 흥미를 주지 못하는 시설물
- ③ 망가진 흔들놀이대
- ④ 동선이 막혀버린 사면놀이
- ⑤ 모래속 유리조각에 손을 다친 유아
- ⑥ 주변 상가에서 버린 쓰레기
- ⑦ 벤치에서 쉬고 계신 어르신들



경로당 때문이었을까 놀이터에서는 유독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잠깐 나눠 본 대화를 통해 공원은 아이들의 놀이터임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놀이터이기도 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아이들의 놀이소리가 소음처럼 들렸고 부모들은 일부 어른들의 좋지 않은 행동이 내 아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좀처럼 잘 어우러지기 어려운 이 2세대 아니 3세대의 조화가 중요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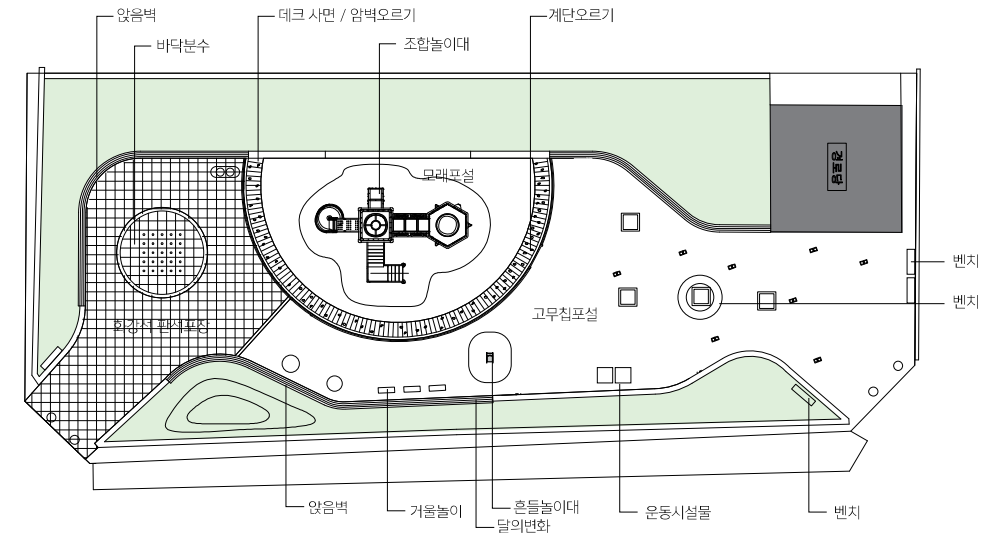
## 대상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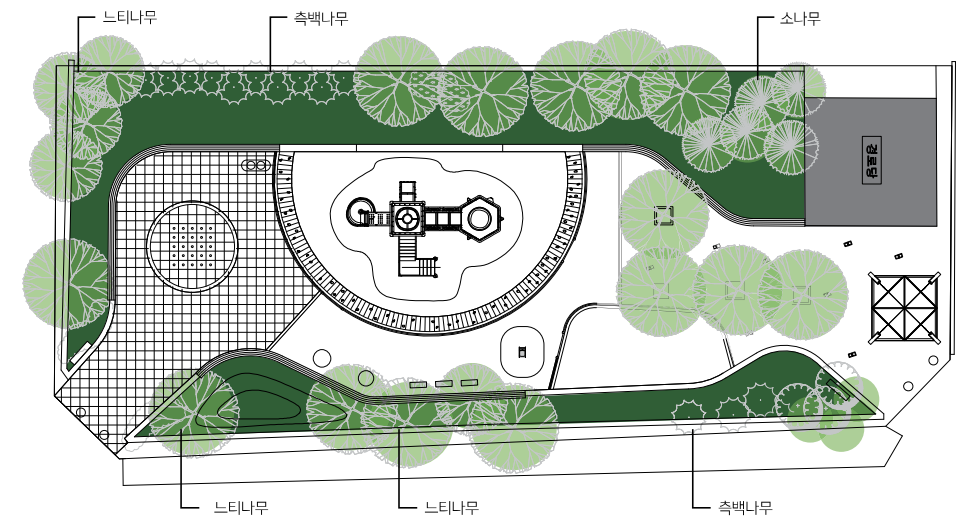
- 위치 | 강동구 길동 405-21호
- 면적 | 999㎡(놀이터 면적 : 500㎡)
- 공원지정년도 | 1972년
- 공원조성년도 | 1979년
- 최근정비년도 | 2009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사업
- 주 이용계층 |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 및 초등학생

### 대상지현황 \_ 시설물현황

조합놀이대1, 흔들놀이1, 바닥분수, 운동시설물2, 거울놀이, 달의변화, 데크 사면, 벤치, 앉음벽



### 대상지현황 \_ 식재현황



## 대상지현황 \_ 주변현황



### 주변 및 이용 현황

- 대상지 주변 300M 반경 내 - 어린이집 3개소, 초등학교 1개소, 길동역
- 대상지 주변 200M 반경 내 \_ 파출소, 우체국, 시장 등 공공시설 및 다세대 밀집 주택 지구
- 길동북조리시장 및 강동 우체국 인접지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골목길
- 어린이집 바깥놀이 장소로 정기적 사용(기리울, 성심, 방주)

### 길동지역 아이들의 놀이경험

길동 지역의 아이들이 매일 일상을 함께 보내는 어린이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광남캐스빌아파트

우성아파트

길동초등학교

달님어린이공원 주변은 대부분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놀이공간이 매우 부족했다. 아이들은 인근 아파트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자체 실외놀이터가 없는 어린이집은 인근 아파트 놀이터를 대체 놀이터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간이 좁아 뛰어놀 공간이 부족했고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기도 한 상황이었다.



## Ⅱ 아이들은 왜 오지 않을까?

처음 만난 달님어린이공원에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 들른 몇몇 아이들 뿐  
어린이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왜 이 곳에 오지 않을까?



**사용자**  
- 유아(어린이집)  
- 초등학생



**보호자/조력자**  
- 교사  
- 부모



**이해당사자**  
- 주변 상인  
- 경로당 어르신  
- 지역주민



**관리자**  
- 구청  
- 경로당



## 어린이

어린이들은 연령에 따라 신체적 발달 정도와 인지 능력이 다르고, 그에 따라 놀이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신체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아이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의 그룹의 아이들이 어떤 놀이경험(생각, 이용 행태, 놀이 방법, 원하는 놀이터)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자 연령	5~7세(어린이집)	8~10세	11~13세
놀이특성	기구를 있는 그대로 이용하거나, 간단한 응용을 시작하는 단계	또래놀이, 집단놀이가 왕성한 시기로 규칙에 맞추어 놀이하거나, 협동력을 필요로 하는 놀이	놀이에 있어 규칙에 전념하는 단계로 놀이를 통해 발휘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보다 복잡하고 경쟁적인 상황을 즐기는 단계

# 유아들은 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까?

놀이행태  
관찰

일시  
2016. 01. 15

대상  
구립기리울 어린이집  
6세반 (만 4~5세)

“미끄럼틀이나 사다리를 타려면  
기다려야 탈 수 있어요”



두 손을 맞잡고  
걸어오는 아이들.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듣고  
이제 놀자! 하는 소리에  
와! 하고 놀이터로 달려나가는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

기구자체의 동선이 제한적이어서 아이들은 줄  
을 지어 기구를 이용하고 있었다.  
놀이기구의 기능이 미끄럼틀과 사다리오르기  
로 제한적이어서 기구에서의 놀이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 미끄럼  
틀로 달려갔지만 한 두번 미끄럼틀을 탄 뒤 주  
변을 뛰어다니며 놀았다.



줄지어 기다리는 미끄럼틀

하지만 그렇게 뛰어놀기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다. 데크 사면 주변으  
로 둘러 설치된 웬스는 아이들의 동선을 막고  
있었고 오히려 아이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이 좁아 그 주변을 돌며 노는 아이들에게는 너  
무 위험해 보였다.



웬스로 더 위험해진 사면놀이대

유아들의 경우 기구의 기능을 대체로 그대로 이용하는 편이었다. 종종 미끄럼틀을 거꾸로 오르려는 아이들이  
보이긴 했지만 심하게 위험하게 놀지는 않았다. 또한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해 나왔던 왕국놀이와 같은 새로  
운 놀이를 만들어내며 노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정한 목적없이 놀이터를 뛰어다니며 노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다.

## 초등학생들은 이 놀이터에서 어떻게 놀까?

### 놀이행태 관찰

일시  
2016. 01. 15

대상  
길동교회 초등부  
(2학년, 5학년)



“한눈에 놀이터를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좋아요”

조합놀이대 기능과 동선이 단순하다 보니 초등학생들은 더 위험한 놀이를 즐기는 편이었다. 특히 조합놀이대 꼭대기로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아이들은 위에 앉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놀이터에 오는 이유도, 노는 모습도 많이 달랐다. 남자아이들의 경우 공놀이를 하거나 뛰어노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여자아이들의 경우 주로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친구와 함께 잡기놀이를 하며  
뛰어놀고 싶어요”



남자아이  
vs.  
여자아이



“뛰어 놀기도 하지만 친구들과 이야기 하거나  
만나는 장소가 되는 놀이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얘들아,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니?

## 놀이행태 관찰

일시  
2016. 02. 02

대상  
방주어린이집  
무지개반 (만 5세)

## “왕국놀이가 제일 재미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던 왕국놀이는 어떤 놀이일까? 놀이기구의 모양으로는 전혀 상상이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모두 왕국 놀이를 좋아했다. 한 아이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 놀이는 아이들 스스로 놀이규칙을 만들어가며 완성한 그들만의 새로운 놀이였다.



## 놀이행태 관찰

일시  
2016. 02. 21

장소  
우성아파트 놀이터  
달님어린이공원

대상  
길동교회  
초등 1~6학년



### ◡ 길동의 아이들은 어떤 놀이 경험을 갖고 있을까?

아이들은 대부분 기구에 위험하게 오르거나 다양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놀이를 즐기고 있었다. 주변의 다른 놀이터에서도 함께 놀아봤지만 거의 유사한 모습이었다. 아이들의 워너비 놀이터 그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재미있는 놀이를 상상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평소에 보통 2~3곳의 놀이터를 다닌다고 말했다. 각각의 놀이터는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도, 그들이 말하는 재미있는 놀이터도 비슷했다.

# 얘들아, 어떤 놀이가 제일 재미있니?

놀이행태  
관찰  
-  
이야기듣기

일과표 그리기 통해 아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놀이를 하는지,  
하루에 얼마나 우리동네 놀이터를 이용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

일시  
2016. 02. 02

“학원가는 길에 잠깐 들러요”

대상  
길동교회 초등부  
(2학년 / 5학년)

놀 시간이 없는 아이들, 놀이가 가장 좋은  
아이들의 일상에 노는 시간은 없었다. 뻑뻑  
하게 짜여진 스케줄 속에서 놀이터는 그저  
지나가다 잠깐 들르는 장소에 불과했다.







## 보호자, 조력자

아이들의 놀이를 돕는 조력자로서 부모와 교사들이 느끼는 현재 달님어린이공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한다. 몇몇 어린이집은 이 곳을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놀이프로그램은 무엇이며 이용시 불편했던 점과 개선 방향, 아이들에게 필요한 놀이란 무엇인지 이야기 하면서 선생님들과 부모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하였다.



## 부모님들

일시  
2016.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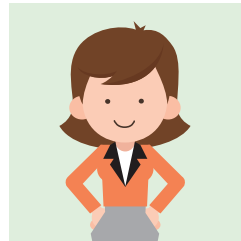
참석자  
길동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관심있는 지역 부모들



“바닥분수에서 놀다가  
눈병이 돌았었어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놀이터 이용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어 위생적이지 않다고 생각했고 바닥분수에서 나오는 물때문에 눈병이 났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바닥분수는 정화가 아닌 상수도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대한 불만도 많았는데 몇몇 어른들의 행태가 아이들의 교육, 정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곳이 아이들에게 시시하고 재미없는 놀이터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아이들이 기구의 기능을 이용하거나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보다 놀이기구에 위험하게 올라가서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모습을 더 많이 목격했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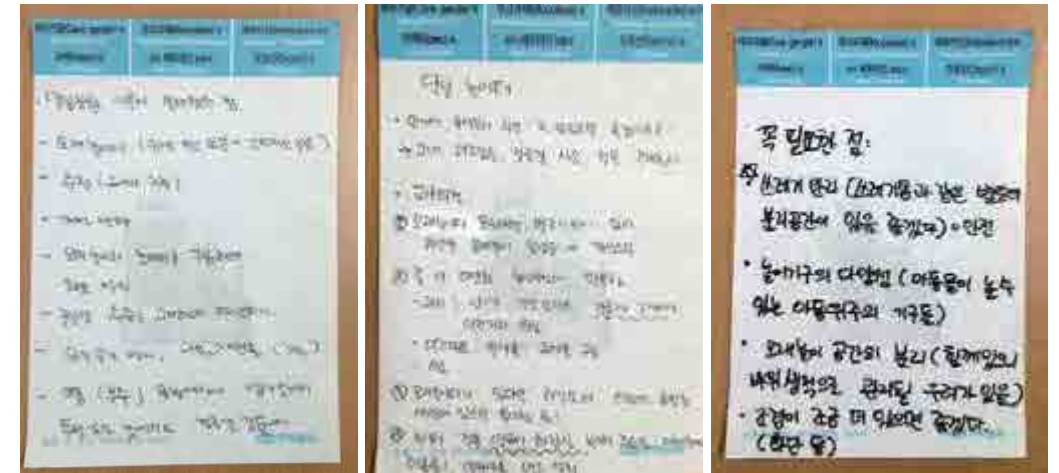
## 어린이집 교사들

“가까워서 좋지만 놀이 활동하기에 너무 지저분해요. 그래서 아파트 놀이터를 이용하곤 하는데 거기는 시끄럽다는 민원이 너무 심해서 눈치가 보이죠. 아이들이 맘껏 놀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일시  
2016. 01. 27

참석자  
방주어린이집  
배정미 원장님  
박호연 선생님

구립기리울어린이집  
안윤주 원장님  
윤지희 선생님



“실외놀이 자체가 교육이에요.  
그런데 달님어린이공원에 나간다고 하면 학부모님이 싫어해요”

- 진행자 : 선생님들은 놀이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1 : 아이들의 실외놀이는 그 자체가 교육입니다.  
 원장님2 : 하지만 달님어린이공원의 나쁜 인식 때문에 학부모들이 반대하세요.
- 진행자 : 이용을 꺼려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선생님1 : 모래에서 심한 악취가 나고 위생적이지 않아요.  
 선생님2 : 모래 내 동물 배설물과 유리 조각 등이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는 부적절해요.
- 진행자 : 노후화 된 달님어린이공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원장님2 : 실외놀이터는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해요. 교육과정에도 매일 1시간 이상 바깥 놀이를 하는 게 평가인증에 포함되어 있지요. 저희 어린이집에는 자체 실외놀이터가 없어서 가까운 달님어린이공원을 나오게 되요.
- 진행자 : 놀이 기구나 수준은 어떠한가요?  
 원장님1 : 시설물 수준이 어린이와 초등생에게는 난이도가 괜찮지만 유아들에게는 좀 높아서 위험할 때가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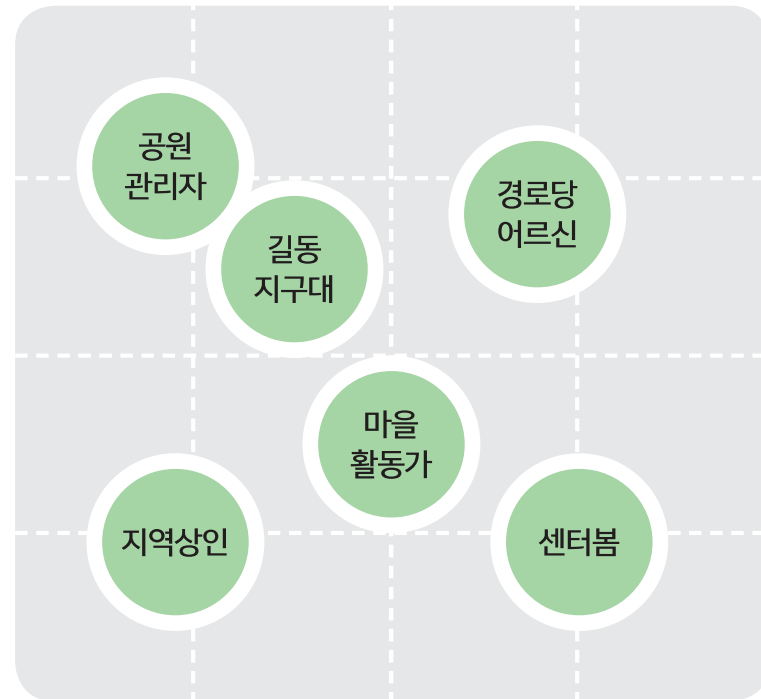
이해당사자



경로당  
어르신

“우리야 어울리고 싶지.  
하지만 요즘에는 이쁘다고 안아주면  
성추행으로 잡아가”

관리자



이용자



우리가 만난 경로당 어르신들은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인 동시에 관리자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받는 운영비 중 일부가 공원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사용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놀이터에 대한 거리감을 표현하셨는데 각박해진 사회적 정서 때문인지 부모들의 불편한 시선 때문인지 아이들의 뛰노는 모습이 예뻐진 하지만 이분들 역시도 불편함을 갖고 계셨다.

### 주변 상인들



“우린 불편한 것은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면 우리야 좋지”

- 어린이공원을 자주 이용하지 않음
- 장사하는 데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함
- 공원이 정비되면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 센터 봄(장애인)



“운동기구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 북조리시장 체험을 위해 주1회 정기적인 방문
- 운동기구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 필요
- 헨스가 쳐져 있어서 접근이 어려움

### 구청 공원관리자



“여기는 놀 것이 없어서 아이들이 잘 안 와요!  
강동구에 어린이공원이 59개인데 혼자서  
그걸 다 관리하기란 쉽지 않죠”

- 노후화 된 시설로 유지관리 어려움
- 동물 배설물이 많아 모래를 없애 달라는 민원이 많음

### 길동 지구대



“공원에서 싸우고 욕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되지만 처벌하기도 어려워서  
난감할 때가 많아요”

- 유동 인구가 많음
- 여성안심길 구간으로 치안에 대한 관리가 잘 되는 편
- 음주, 흡연도 자주 목격

### 마을활동가



“길동인구는 5만이지만  
길동은 아쉽게도 마을공동체가  
활발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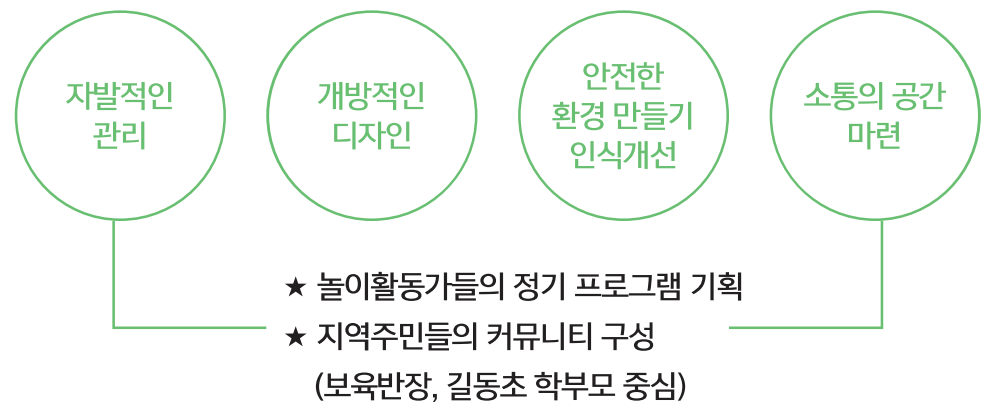
- 강동구에서 유일하게 커뮤니티 활동 저조



달님어린이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지리적 위치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우선 학교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주로 다니는 동선상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잘 모여들지 못하는 곳이었다. 종종 학원을 가다 잠시 들르는 아이들이 전부였다. 게다가 시장 끝 쪽에 위치하고 있어 오히려 경로당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는 분위기였다.

놀이터 주변에는 거의 매일 좌판이 열리고 있었고, 공원에서 음주를 즐기시는 어른들도 계셨다. 이런 모습들로 인해 달님어린이공원은 자연스럽게 아이들, 부모들과 멀어졌다. 하지만 달님어린이공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다. 바로 옆에 위치한 방주어린이집은 대체놀이터로서 달님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그 밖에도 3곳 이상의 어린이집이 놀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어른들로 인해 오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다시 놀이터를 돌려줄 수 있을까?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목이 좋음</li> <li>- 경로당에 공원관리자가 있음</li> <li>- 유동인구가 많아 비교적 안전함</li> </ul>
W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쇄적 어두운 분위기, 지저분한 주변환경</li> <li>- 주차차량과 차량통행이 많음</li> <li>-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 휴게 공간이 부족함</li> <li>- 시장 주변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커뮤니티 장소로 놀이에 집중하기 어려움</li> </ul>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조리시장 활성화(커뮤니티 구성 중)</li> <li>- 놀이터를 필요로 하는 잠재적 사용자가 많음(주변 어린이집)</li> <li>- 고정적인 사용자의 니즈가 있음</li> </ul>
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길동 내부에 현재 활동커뮤니티 없음</li> <li>- 아이들에 대한 어르신들의 무관심</li> <li>- 주민들에게 놀이터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음</li> </ul>





### Ⅲ 함께 만드는 놀이터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주민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더 삭막해 보이는 달님어린이공원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아이들이 원하는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까?

### 워너비놀이터 만들기 1차

일시  
2016. 02. 02

대상  
방주어린이집  
무지개반(만 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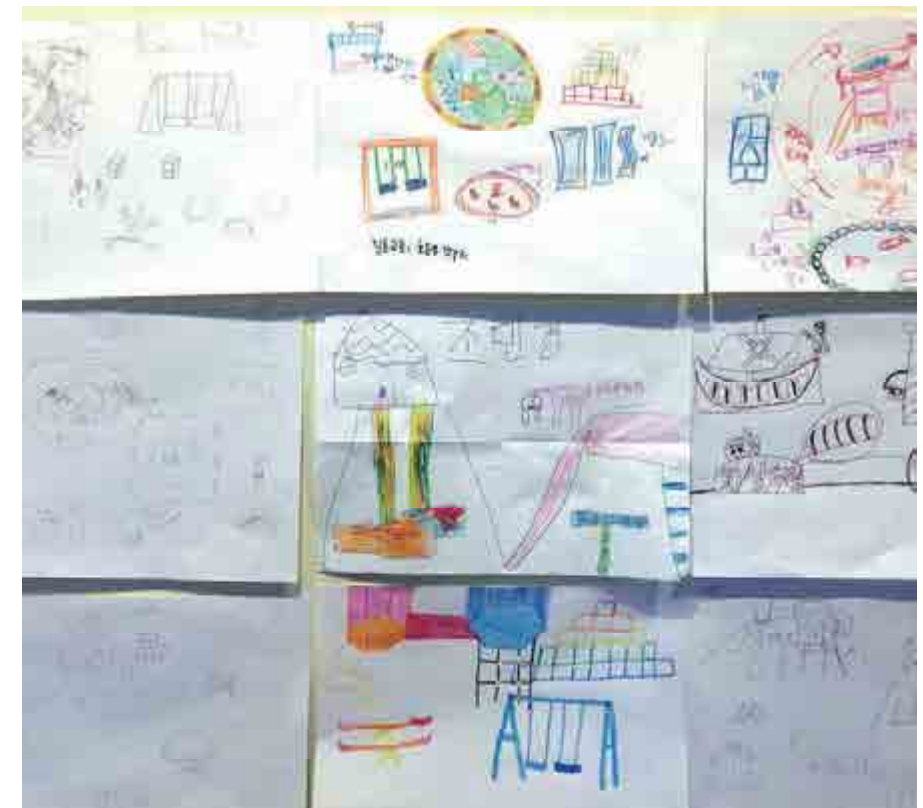


아이들은 기구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실외놀이를 할 때는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확장된 놀이를 즐기길 원한다.

### 워너비놀이터 만들기 2차

일시  
2016. 02. 24

대상  
길동교회 초등부  
(2학년 / 5학년)



초등학생의 경우 유아에 비해 보다 더 모험적이고 스릴있는 놀이를 원했고, 기구 자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응용한 놀이를 창조하며 놀이한다.

# 조합놀이대 없이 놀아볼까요?

## 놀이워크숍 1차

일시  
2016. 02. 16

대상  
방주어린이집  
무지개반(만 5세)

### 미로놀이



장애물 통과하기



낙서하기

현재 놀이터에 있는 기구에서는 지속적인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도구가 주어지자 아이들은 스스로 놀이를 만들며 더 재미있어하는 모습이였다.

때로는 놀이터가 미로가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던 바닥에도 멀리뛰기를 그려가며 다양한 놀이를 만들어냈다.

## 놀이워크숍 2차

일시  
2016. 02. 18

대상  
방주어린이집  
무지개반(만 5세)

“이건  
사자예요”



놀이터는 관찰과 발견의 장소이다.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 아이들은 다른 놀이 경험을 한다. 하지만 때때로 그런 환경이 놀이의 제약이 되기도 한다. 실제로 아이들은 엄마가 ‘비가 오는 날에는 밖에서 놀지 마라’고 했다며 비오는 날은 밖에서 놀지 못하는 날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말 비오는 날, 눈오는 날은 밖에서 놀 수 없는 날일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 더 즐거운 놀이터는 없을까?





# 어린이디자인단 우리들의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요

## 일시

2016. 02. 28

2016. 03. 06

## 대상

어린이 디자인단(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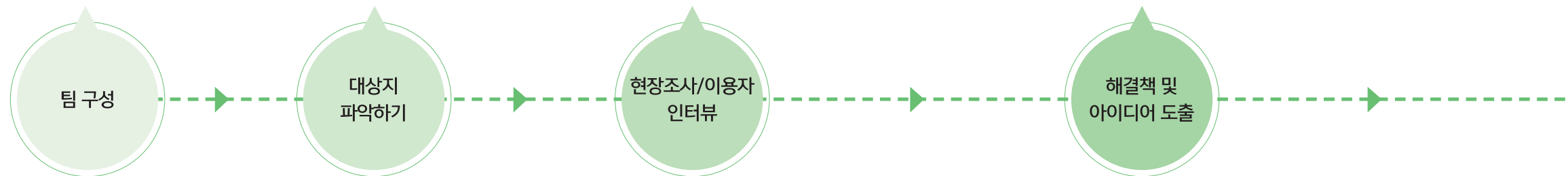
(4~6학년 어린이 6명)

## 활동목표

놀이터가 갖고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이용자인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문제 해결의  
의사결정 주체로 참여

## ◀ 어린이디자인단원 소개

- 정○재 : 소통을 잘하고 자신의 생각을 잘 피력하는 아이
- 신○환 : 장난기가 많지만 현상을 정확하게 보는 아이
- 김○건 : 침착하고 의젓하며 만들기를 통해 생각을 잘 표현하는 아이
- 전○경 : 자신감이 부족하지만 신중하고 똑똑한 아이
- 정○우 : 집중력이 높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한 아이
- 이○유 : 문제가 있다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긍정적인 아이





디자인하기

☾ 아이들의 의견

Q1. 아이들이 즐거운 놀이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 아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의 확보
- 암벽타기 할 수 있는 높은 언덕
-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쉴 수 있는 쉼터
-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재미있게 바꾸는 것

Q2. 아이들이 계속 찾는 놀이터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

- 자유놀이 공간 / 바닥놀이 보드게임
- 달님 벤치 / 휴식 공간
- 암벽과 언덕
- 달그네 / 미끄럼틀
- 물놀이터 / 텃밭

우리 놀이터  
우리가  
만들어요~!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더 스릴있고 활동적인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바깥놀이 장소로서의 놀이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신체활동임을 상기시켜 주었으며, 어른들이 보기에는 위험해 보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더 도전적인 놀이를 원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의 안전한 놀이를 위해 분리된 놀이 공간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동생들을 위한 배려도 할 줄 알았다.

## 성인디자인단 안전하고 깨끗한 놀이터 만들기

### 일시

2016. 03. 10

2016. 03. 18

2016. 03. 25

### 대상

지역 주민

### 활동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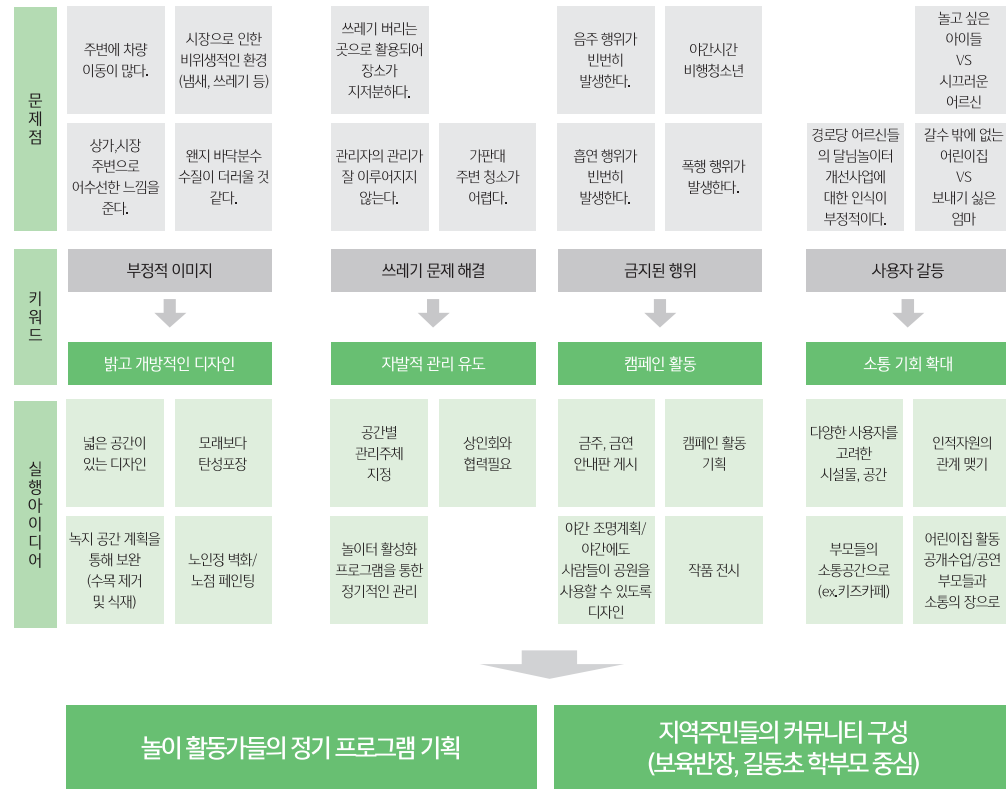
놀이터가 갖고 있는  
위생과 안전에 대한  
문제들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토의함



공원의 이용자인 동시에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를 돕는 조력자로서 놀이터 조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나누었다. 지역 주민, 관리자로서 강동구 관계자와 놀이활동가, 어린이집 교사, 보육반장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로 자발적인 참여와 주인의식을 배양하기 위한 방법들을 토론했었다.



### III 함께 만드는 놀이터



- 공간의 효율을 높이는 디자인과 오픈 스페이스 조성을 통해 좁은 놀이 공간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함
-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의 디자인
- 다양한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놀이터
-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원의 갈등 문제 해결

강동구에서 유독 주민 커뮤니티가 없었던 길동 주민들은 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법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 주민워크숍 놀이를 통한 교육

일시  
2016. 03. 04

대상  
지역 주민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 속에서 놀 시간을 빼앗겨 버린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지켜 주는데 부모의 양육, 교육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것은 시간낭비일까? 좀 더 과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 우리 아이들을 밖에서 뛰어놀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듣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흔히 영재라고 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양육 태도는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아이들의 영재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 노규식 박사는 그 답을 놀이에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영재성은 사회성, 정서적 안정에서 시작되는데 그런 특성은 잘 노는 것을 통해 형성된다. 그런 면에서 놀이터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장소이며 노는 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은 꼭 필요하다. 아이가 흥미 있어 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해주는 것이 결국 아이의 잠재적인 영재성을 깨우는 지름길인 것이다. 과도한 부모의 관심과 간섭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놀 줄  
아는 아이

놀이활동가  
김규승 선생님



우리 아이들은 진짜 놀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놀이기구가 없는 놀이터는 재미없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놀이를 통해 맞본 도전과 성취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신체적 성장은 물론 사회에 적응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에 부모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놀이는 치유의 과정이기도 하다. 김규승 선생님은 다양한 놀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치유받고 있다는 점을 느꼈다고 한다. 부모로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진짜 놀 기회를 빼앗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할 시점이다.

## 주민설명회

일시  
2016. 03. 30

장소  
달님어린이공원



아이들, 주민들과 진행했던 활동과 그러한 활동을 통해 정리된 디자인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날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상상한 놀이터의 모습을 보고 신기해하는 모습이였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 더 신중한 모습이였다. 사각지대에 대한 의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안하였으며 그중 많은 부분이 디자인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다.



#### IV 디자인하기

“긴 미끄럼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뛰어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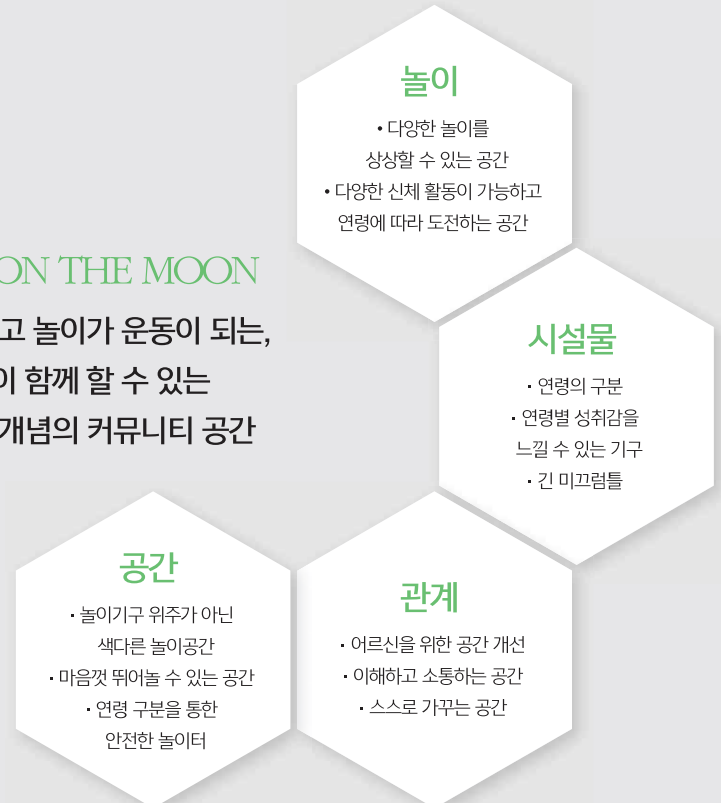
아이들과 함께 만든 놀이터를 소개합니다.

## 공간구성하기

### DESIGN CONCEPT

#### OUTDOOR ON THE MOON

휴식이 놀이가 되고 놀이가 운동이 되는,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아웃도어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면서 성장하고 치유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OUTDOOR' 는 몸을 움직임으로 얻게되는 즐거움과 치유의 개념을 뜻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이 뛰어 노는데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다. 넓지 않은 공간이지만 아이들이 기구를 이용하는 동선과 분리된 달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디자인은 어린이디자인단의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놀이터를 하나의 게임장이라고 생각했다. 이곳에서 많은 놀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유아들은 '왕국놀이'를 만들어냈고 초등학생들도 보드게임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놀이워크숍 때는 누가 더 멀리뛰는지 경기를 하기도 했다. 우리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읽은 아이들의 놀이행태를 바탕으로 바닥패턴을 디자인했다.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이길 원했다.

시설물은 연령 구분을 통해 좀 더 안전하고 도전적인 놀이터로 디자인하였다. 2미터가 넘는 긴 미끄럼틀을 설치하고 서로 다른 난이도의 두개의 언덕에 다양한 오르기 기능을 설치하여 도전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경사면을 오를 때는 바닥면과 발바닥의 마찰력을 느끼면서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몸의 균형감각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은 위험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갈 것이다

이 곳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세대간의 벽이었다. 하지만 소통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어른들께도 이 장소가 운동



을 통해 좀 더 건강한 장소가 되길 바라며 안전하면서도 꼭 필요한 몇 가지 운동기구를 설치하였다. 또한 흔들 의자를 설치하여 좀더 밝고 활력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밝고 건강한 분위기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 때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많은 아이들이 꾸준히 찾아오게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부재는 곧 놀이터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달님어린이공원의 위치를 다시보면 아이들의 주동선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엄마와 시장을 보러 나오거나, 학원을 가면서 또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위치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자주 지나 다니는 곳이란 뜻이다. 비슷 비슷한 놀이터들 사이에서 디자인의 차별성을 통해 아이들이 오고 싶어하는 놀이터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터가 되고 사람들이 다시 모여 들면 이 공원이 갖고 있던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①지형놀이 (사면슬라이드 H1200/2400. 봉 잡고 오르기, 암벽 오르기, 줄 잡고 오르기) ②네트 놀이대 / ③모래놀이대 / ④놀이 가벽  
⑤달 파고라 / ⑥조형 벤치 / ⑦흔들 벤치 / ⑧운동 기구 1 / ⑨운동 기구 2 / ⑩어깨 돌리기 / ⑪허리 돌리기

PRODUCT \_ 놀이 시설물



PRODUCT \_ 휴게 시설물



코오롱스포렉스의 자문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어르신을 위한 운동시설물



01.지압[족저근막]

족저근막 지압을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발이 건강해지는 공간으로 조성

02.하퇴삼두근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보드를 설치, 발바닥 → 아킬레스건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확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봉을 설치 앞에서는 스트레칭, 뒤에서는 하퇴삼두근 강화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

03. 허리존

기존 시설물을 보수하여 재활용을 통한 비용절감 및 친근한 운동시설 조성



04.3단 벤치

[신체나이 테스트, 스쿼트, ASLR] 벤치 3개를 크기가 다르게 제작 은어송 하늘채 운동 공간과 같은 컨셉 각각의 크기 벤치에서 다양한 운동 가능

05.오십견 케어존

[스텝보드, 진자펜스] 3번째 벤치에 스텝보드를 함께 설치하여 노화에 따른 어깨가동성을 확보해주는 공간

06.낙상예방존[래더]

발목 가동성 및 근력 감소로 인한 낙상 위험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분들을 위한 발목을 이용한 걷기 운동 및 가동성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이곳에서 운동 후 낙상 예방을 할 수 있는 공간

# 이렇게 달라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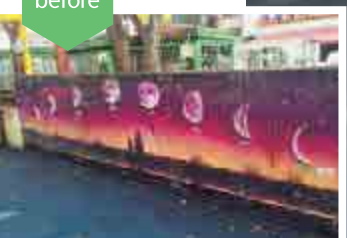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 V 애들아 놀자

달님어린이공원의 변화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강동구에서 유독 지역 커뮤니티가 없었던 길동에  
달님어린이공원이 주민들간의 소통의 시작점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놀 시간조차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진짜 놀아보겠습니다.  
애들아 ~! 우리 신나게 놀아보자~!

# 놀이워크숍 “애들아 놀자~!”

## 첫째놀이 둘째놀이

아이들이 바닥에 그림을 그리거나 작은 도구만 가지고도  
쉽게 할 수 있는 전통놀이 활동과 집중력을 키워주는 한국놀이

### 일시

2016. 04. 02

2016. 04. 16

### 진행

지역 놀이활동가

김규승 선생님

### 대상

길동 지역 어린이들



아이들의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놀이 활동으로 근력, 민첩성, 순발력을 키우는 활동

## 셋째놀이

### 일시

2016. 04. 09

### 진행

코오롱스포렉스 트레이너

### 대상

길동 지역 어린이들



☪ Ladder reaction

사다리를 설치하고 사다리 안팎에서 이동 규칙을 정한 뒤 움직이며 몸의 균형과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

☪ 핏 라이트

반짝이는 도구를 따라가며 빠르게 반응하는 놀이, 근신경계의 반응 속도를 올려줄 수 있는 놀이로 일상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대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

☪ 단체 줄넘기 / 8자 마라톤 트레이닝

체력과 협동심을 함께 기를 수 있는 놀이, 심장 박동을 증가시켜 근육의 산소 소비능력을 증가시켜준다.





## VI 달님아 반가워

약 한달간의 공사를 마치고 드디어 놀이터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새로 태어난 놀이터를 만나러 모두 모였습니다.  
달라진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 개장식

## 개장식

일시  
2016. 07. 22

행사  
개장식  
축하공연  
놀이마당  
축하마당

참여  
강동어린이회관  
우리동네보육반장  
길동초초록어머니회  
길동복조리시장육성사업단  
길동주민자치위원회  
차돌체육관



지역주민과 아동의 참여로 새로 단장한 달님어린이공원을 통해 아동의 놀권리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주민들과 함께 개장식을 준비하고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축하공연1\_ 하모니 팀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노래하는 강동구 지역 합창단



## 축하공연



축하공연2\_ 기리울 두드림 난타팀  
복조리 시장 상인들이 모여 만든 난타팀

### 마을정원만들기

진행  
지역 엄마 모임 \_  
언제나 놀이친구



언제나 놀이친구는 길동 인근 엄마들이 함께 모인 지역 자조모임으로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놀이활동을 하고 있다.

기존 놀이터에서 흰스로 사용되던 목재에 어른들에게 바라는 아이들의 마음을 담아 안전 수칙 풋말을 디자인했다.



### 안전나무만들기

진행  
(주)아이땅



### 놀이마당

진행  
김규승선생님

그 동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신 놀이활동가 선생님의 또 한 판의 놀이마당이 진행되었다.





## 개장식 이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한 이야기

놀이터를  
지켜라!  
어린이집 놀이프로그램

### 일시

1차 2016. 09. 23  
2차 2016. 09. 30  
3차 2016. 10. 07  
4차 2016. 10. 21

### 대상

방주어린이집 6세반(22명)  
7세반(23명)

### 진행

김규승 놀이활동가

### 보조진행

강동구보육반장 2명  
(하인옥, 나국본),  
보육교사 3명



달남어린이공원 개장 이후 어린이집 아이들과 함께 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새로워진 놀이터에서의 변화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아이들은 좀 더 자유롭게 뛰어다녔고 미끄럼틀을 타기 위해 줄지어 계단을 오르지 않았다. 언덕을 오르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끝까지 다 오르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놀고 있었다. 때로는 언덕을 거꾸로 오르기도 하고 기울어진 땅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비록 커다란 조합놀이대는 아니지만 아이들은 더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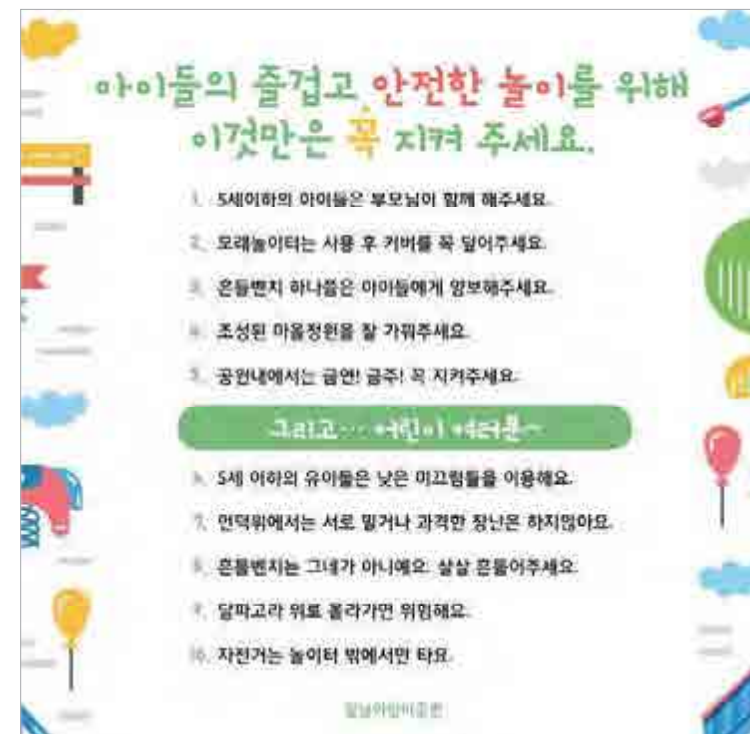
엄마와 자녀가 놀이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다양한 놀이를 즐기는 놀이프로그램 ‘엄마랑아이랑’은 지역내 자조모임 ‘언제나 놀이친구’와 자녀를 동반한 많은 엄마들이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였다.

**엄마랑 아이랑**  
부모자녀 놀이프로그램

**일시**  
1차 2016. 10. 13  
2차 2016. 10. 20

**대상**  
49명(부모22명/아동27명)

**진행**  
1차 신영문 놀이활동가  
(놀자봉사단 대표) /  
2차 김규승 놀이활동가  
(창의인성놀이팀)



**부모수다\_**  
놀이, 놀이터 그리고 안전

**일시**  
2016. 09. 23

**대상**  
언제나 놀이친구(6명)  
경장경 보육반장

**진행**  
(주) 아이땅

아이들이 뛰어 노는 놀이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역의 유아를 둔 엄마들과 함께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지켜야 할 특별한 안전 수칙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모든 놀이터에 똑같이 붙어있는 안전수칙이 아닌 이 놀이터에서 부모들이 지켜야 할,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만들었다.

놀이터  
마을정원 만들기  
원예프로그램

일시

2016. 10. 12

2016. 10. 19

대상

63명

1차 21명(아동 제외)

2차 42명(아동 포함)

진행

플라워엔가든인피플

김영일 대표의 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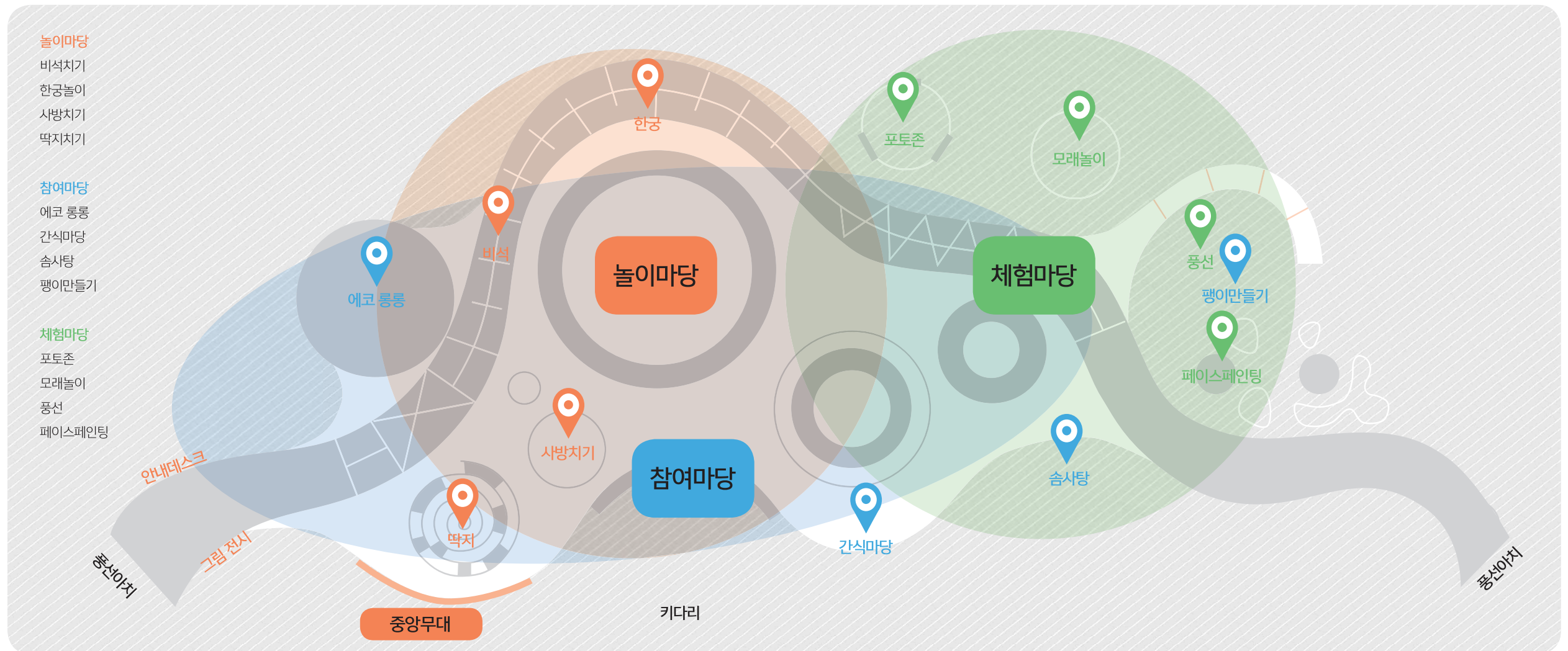
공원 한 켠에 마련된 정원,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공원을 아름답게 가꿔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주민들과 진행한 마을정원 만들기 프로그램



## VII 달님아 축하해

달님어린이공원이 개장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동안 새롭게 변한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아이들과 놀이활동을 진행했고,  
주민들과의 뜻을 모아 우리 놀이터만의 안전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놀이터가 계속  
깨끗하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놀이터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100일잔치 마스터플랜



## 달님어린이공원 100일잔치

벌써 11월, 달님어린이공원을 처음 만난 지 1년이라는 시간이 되어간다. 100일 잔치가 열린 달님어린이공원에는 수 많은 아이들이 행복한 얼굴을 하고 놀고 있었다. 예전에 싸늘했던 달님어린이공원은 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마을의 축제였다. 우리는 1년간 수 차례에 걸쳐 워크샵과 주민 참여 활동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를 끌어내고자 했다. 지역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참여를 강요할 수 없었고, 그 때문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그 과정에 의미있는 참여를 해주셨고 주민들과 함께 100일잔치를 열게 되었다.



달님어린이공원의 개장 후 과연 이 놀이터가 지금처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런 문제야말로 지역 주민들의 뜻과 힘이 모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놀이터에서 한 장의 포스터를 발견했다. 길동지역 마을활동가를 모집하는 주민센터의 홍보 포스터였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시는 관계자분을 만난 후 그런 걱정은 희망이 되었다. 오히려 그런 활동들에 이 곳, 달님어린이 공원이 좋은 접착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밀려왔다.

아직도 놀이터 디자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곳에서 노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다는 것이다. 이제 그 웃음이 다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 참여마당

### 내 손 안의 작은 발전기

진행  
에코 룹롱

대상  
49명(부모22명/아동27명)

발전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친환경 발전기를 직접 제작해 보는 활동으로 우리의 운동에너지로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할 수 있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는 놀이가 에너지가 되는 사례들도 많다고 하니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활동이었다.



가장 인기있었던 부스~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달콤한 솜사탕.  
어른들도 동심으로 돌아가 아이들과 함께 줄을 섰다.



### 간식마당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 팬이만들기

진행  
강동 어린이회관

언제부터가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스스로 놀잇감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 준 매우 뜻깊은 활동이었다. 아이들도 스스로 예쁘게 꾸민 팬이와 바람개비를 돌려보며 신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엄마의 마음으로 강동구 우리동네 보육반장들이 함께 해주셨다.



## 체험마당

### 페이스페인팅

진행  
청소년 재능기부



언니, 오빠들의  
동생들을 위한 선물.  
작은 재능의 나눔이  
큰 행복이 되는 순간.

### 전시마당

진행  
세이브더칠드런



모래놀이는 모든 아이들에게 가장 재미있는 놀이 중 하나이지만 공공 공간에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자주 나오는 곳이다 보니 모래 놀이터는 꼭 필요한 영역이었다. 그래서 공간을 최소로 유지하고, 고양이 배설물 등 오염으로부터 모래를 지켜줄 수 있도록 사용 후 모래를 덮을 수 있는 덮개를 준비하였다.



### 모래놀이

진행  
자유놀이



### 포토존

진행  
자원봉사단



## 놀이마당

진행  
김규승 선생님

일곱 놀이 마당  
한궁  
비석치기  
망쭈기  
구슬치기  
떡지치기



## 변화된 달님어린이공원, 어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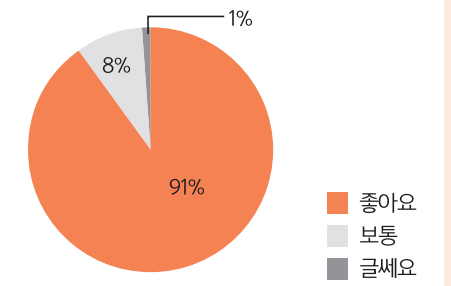
### 달님어린이공원 만족도 조사 결과

일시  
2016. 1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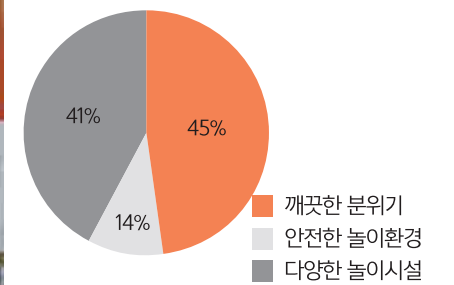
대상  
달님어린이공원  
이용 아동 및 주민  
설문1) 195명 참여  
설문2) 159명 참여



설문1)  
‘달님어린이공원’이 지난 7월 새롭게 변화 되었습니다.  
변화된 놀이터 어때요?



설문2)  
‘달님어린이공원’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은 무엇인가요?





## 마치며 아이들에게 놀이터란?

“놀이터가 새단장 하기 전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친구들과 놀이활동에 참여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일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이 달님어린이공원을

우리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새 단장한 놀이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신명초등학교 5학년 3반 구예원

## ‘놀이터를 지켜라’ 달님어린이공원 프로젝트를 마치며...

“놀이터를 지켜라”라는 프로젝트를 언론을 통해 처음 접했을 때 아이들의 놀 권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당연하면서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창 뛰어놀 아이들을 키우는 가장으로서 공감도 가고 관심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침 그룹 내 사회공헌활동 사업과 연계할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외부공간인 놀이터를 꼭 놀이뿐만이 아닌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휴식과 운동도 가능한 장소,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컨셉 회의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하며 고심하였습니다. 지역 아이들과 수차례 워크숍을 하면서 나오는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이 오히려 저희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놀이터에서 보여지는, 완제품으로 조성되어져 정해진 놀이가 암묵적으로 강요된 놀이터가 아닌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활동과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형과 시설물의 변화를 통한 공간을 조성하기로 하였고 ‘OUTDOOR ON THE MOON’이라는 달님어린이공원에 걸맞는 컨셉을 도출하여 놀이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건설회사에서 조정업무 하는 기술자로서 제가 항상 하는 업무가 누군가를 특히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 어려움으로 작은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조성된 달님어린이공원이 지금과 같이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공간으로 오래도록 유지되길 바라며 또 훗날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소중한 추억의 장소로 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의 놀이터를 지키는 이 프로젝트에 저의 작은 재능을 기부하고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코오롱글로벌(주) 김우성 과장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보고서(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4)」에 따르면 아동들의 상당수는 놀이터를 자신의 생활환경 중 ‘중요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 가장 자주 거론하는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만큼 아동에게 놀이터는 궁극 이상의 의미이자 동네를 안전하게 느끼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새로운 놀이와 사회관계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공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문한 달님어린이공원은 ‘안전하고 깨끗해서 친구들과 매일 놀고 싶은 놀이터’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어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두운 이미지에 쓰레기는 널브러져 있고 한 낮이었지만 아이들은 다섯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없었으며 햇볕을 쬐기 위해 나온 경로당 어르신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동과 지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만만치 않겠다는 불안도 엄습했지만, 그렇기에 더욱 달님어린이공원의 변화가 필요하고,

아동들의 재잘거리는 수다와 웃음소리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놀 권리”의 주체자인 아동과 이들에게 안전한 놀이 환경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는 의무이행자들이 함께 디자인 과정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으로 유지되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형화된 틀을 깨고 창의적인 놀이가 가능한 달님어린이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되었고,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놀이터의 주인공 아이들과 가족이 모여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님어린이공원 개선사업을 진행하면서 엄마가 저녁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고무줄 놀이, 사방치기, 공기놀이를 하며 시간가는 줄 몰랐던 저의 유년시절이 새록 새록 떠올랐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달님어린이 공원이 아이들의 유년시절에 친구, 가족, 동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제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길러주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 세이브더칠드런 중부지부 / 김미숙 지부장

## 디자이너의 한마디

☾ 처음엔 조그만 어린이공원을 디자인하는 일로 생각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주민들과 달님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아이들 등 그곳을 사용하는 사용자들과 직접 대화하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정된 공간과 정해진 비용 안에서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절충안을 찾는 데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만족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 반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이었어요.

달님 ‘어린이’ 공원이기 때문에 가장 만족하고 즐거워 해야 할 사용자는 ‘어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하루 하루 새롭게 자신들의 놀이를 만들어 놀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의 쉼터도 중요하고 여러 교육적이고 실용적인 기구들도 중요하지만, 커다란 조형놀이대에 뻗은 그네와 시소가 배치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런 틀에 박힌 놀이터가 아닌 어떤 날은 바닥이 이야기공간이 되고 그 다음날은 미끄럼틀 그 다음날은 오르기 공간이 되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달님어린이공원’을 우리 동네에만 있는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즐거운 추억이 가득한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 (주)청우퍼스태이션 신유리 디자이너

☾ 새로운 공간 더 나은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이번 프로젝트는 늘 그렇듯 많은 문제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바람과 아이들의 바람을 모아 가장 큰 바람들부터 이루어주자는 마음으로 진행하였고 이번 변화된 달님어린이공원은 기존에 보아왔던 고정된 시선의 시설물이 아닌 새롭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들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달님어린이공원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순간들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청우퍼스태이션 김현태 디자이너

## 기획자의 한마디

어린이들에게 놀이란 배움입니다.

☾ 아이들은 더 높은 미끄럼틀, 더 위험해 보이는 기구들에서 놀면서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 도전하고 성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체의 발달은 물론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놀이 경험을 통해 위험에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위험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아이들은 그런 도전을 통해 더 안전하게 생각하고 움직입니다.

종종 우리는 사고가 일어난 놀이터는 위험한 놀이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놀이터는 안전한 놀이터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들은 모든 위험 요소를 배제한, 결국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재미없는 시시한 놀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달님놀이터에서의 모험과 도전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이자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갈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되길 바라며, 그에 더해 아이들에게 그런 배움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세이브더칠드런의 ‘놀이터를 지켜라’ 프로젝트가 계속되길 응원하겠습니다.

- (주)아이땅 한나라 소장



“아이들이  
행복한  
놀이터를  
만들어 주세요”



☞ **사업기간** 2016. 01. 04 ~ 2016. 11. 30

☞ **총괄** 세이브더칠드런

☞ **후원** (주)코오롱

☞ **재능기부** 코오롱글로벌(주)

☞ **기획** (주)아이땅

☞ **리서치** 마노아마노

☞ **디자인 및 설계** (주)청우퍼스태이션

☞ **협조** 강동어린이회관, 길동주민센터

☞ **함께 해주신 분들**

강동어린이회관 / 강동구우리동네보육반장 / 길동주민센터 / 반딧불작은도서관 / 길동지구대 / 방주어린이집 / 기리울어린이집 / 아이누리어린이집 / 길동교회 / 센터 룸 / 강동구마을지원단 / 길동초초록봉사대 / 북조리시장신시장육성사업단 / 길신교회 / 달님노인정 / 코오롱스포렉스 / 에코 룬롱 / 차돌태권도체육관 / 강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 강동구자원봉사센터 / 고덕천사 / 캘리그라피백작 / 풍선이좋아 / 땡미네사과나무공방 / 가족노래패 화모니 / 북조리시장상인회 / 플라워앤가든인피플 / 눈썰미 / 명일동주민센터 / 강동청소년수련관 / 성덕여중여섯손가락 / 놀자씨씨

☞ **발행일** 2016. 11. 30

☞ **발행처** 세이브더칠드런



##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전 세계 약 120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입니다.